

조혜선 러시아 민족대학

서론: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이라고 설명한다. 그럼으로 이 해석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 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그리스도(기독인, 신앙인) 인으로 불려지는 근거, 그리스도인의 성정, 그리스도인의 양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위성 등을 통전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확정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라는 단어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 논문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할 때, 그 회복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으로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혹은 성장 또는 성숙이라는 표현도 적합하리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실체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체성으로 인식 되어지는 내용조차도 마치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서 그리스도인 이라고 부르고, 불려질 수 있는 이름임으로, 인간과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은 “영” 이시고, “생명”이시며 살아서 약동하시는 분” 이심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거듭난” 인간의 영도 역시 반드시 살아서 약동한다, 그럼으로 고정되고 고착되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이 되어, 정체성의 인식에 대한 변화 또는 정체성의 인식에 대한 성장이라는 단어 사용도 가히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려 된다.

먼저 한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 1.한국민족의 영적 성질의 형성과
2.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민족의 영적 성질,
3. 한국민족 영성 위에 세워진 기독교와 수용과정.
- 4.한국 기독교인의 삶의 양태와 성장.
5. 한국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루어진 결과 등 ,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날 한국인에게 입혀진 기독교 영성의 성질을 살펴야 궁극적으로

한국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별해 낼 수 있고, 그 후에야 이 시대에 흐르는 영적 성질을 바탕으로 성경에 입각한 정체성의 회복(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회복, 또는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또는 변화, 아니면 성숙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내용을 설정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논문 구성의 핵심용어는:

영성, 한국 민족 영성, 한국 기독교 영성, 한국 기독교인의 삶, 그 결과,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과, 회복(변화, 성숙). 등이고,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은 세상에 흐르는 영적성질과 맞물려 “때” 가 이르렀기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해야 하고, 수용해 갈 수 있는 길로 열어놓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다고 믿는다.

본론:

영성이라는 용어는 이 시대에 아주 많이 그리고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발제자인 본인은 영성을 세속 영성과 기독교 영성으로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고,

세속 영성이란 기독교 영성이 아니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부식간에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본인들의 무의식적으로 행동 양식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의 무의지적 성질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민족성, 민족문화, 각 민족의 가치관등 총체적으로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되는 데는, 종교와, 지형, 기후, 그리고 대인 관계와 교육을 빼 놓을 수가 없다.

동양철학에서는 우주만물에는 “기(氣)”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힘)가 모든 만물에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기(氣) 라는 용어는 동양의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론의 핵심 공리로서, 성리학에서 본체 이론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널리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서 의술이나 풍수지리설(1)과 같은 전통학문의 여러 분야에서도 아주 특수한 전문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즉, 기(氣)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형태가 있는 모든 물질의 근원으로 인식되며 또 이 기(氣)라는 용어는 고전적인 이해 안에서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변적 이론이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신체계의 다양한 내용들을 애매모호하게 포괄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동양 의학에서는 인체에 함유된 기의 흐름과 조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기(氣)의 흐름을 조절하며 치료하는 의학 방법도 있다. 연구자는 동양철학에서 인정하는 “기(氣)”도 영적인 성질인 영성의 일부로 이해한다.(2)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는 영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체적인 영의 영향(종교적으로)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경험된 감각이나 오랜 기억이 남아서 인간 자신의 일부로 남아 있기도 하고(자연 환경과 인간관계에 의한 영성), 의지가 동반된 반복된 교육의 내용이 인간 내면으로 유입되어 영적 성질(교육 영성)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관여한다고

본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성의 성질에 의해 인도받으며, 각 민족은 자국만의 독특한 영성을 갖게 되고, 각 국가의 특정한 영적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면,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하므로(행 17:11)”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행17:22” 등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특성의 영성을 가진 민족이고,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민족 영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한(한국)민족의 독특한 영성과 그 형성.

1) 한국민족 신화인 단군신화의 내용에 드러난 한국민족의 영성을 살펴보면.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의 민족성은 기록이 없는 관계로 유추하기가 어렵지만,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의 그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에 드러난 내용으로 한국민족(한민족)에게 심겨진 민족성(영성)은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와 곰이 변한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아 «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3) 다시 말하면, 국가를 세워서 개인의 영달이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자기중심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타인중심» 이라는 한민족 만의 독특한 영적 성질이 드러나고 있다.

신화는 그 민족이 그려놓은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스럽고, 솔직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민족의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어떤 열망이 의식의 벽을 뚫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러나온 것이 신화로서, 각 민족의 시조 신화는 각 민족이 기원하는 종교적 열망이나, 무의식적인 욕구가 투영되어 있고, 그 민족의 의지와 민족의 독특한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군신화에 드러난 한 단면이 한국민족의 민족 영성의 일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2) 단군 신화 외에도 한국민족의 영성 형성에 영향을 준 여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민족의 영성 형성은 고대로부터 유전적으로 입혀진 영성과 더불어서 교육을 통하여 입혀진 영성으로서의 현상을, 구전으로 그리고 삶으로 교육된 토속신앙과 불교와 도교, 유교를 통해 형성된 성질 등을 어렵지 않게 오늘 날에도 보고 듣고 살고 있는 바이다. 불교나 도교 유교 등이 한민족에게 들어온 시대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2세기에서 4세기, 경우에 따라서는 7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기원전 37년), 신라(기원전전57년), 백제(기원전 18년)에 건립되

었고, 고구려는 327년, 백제는 324년, 신라는 527년에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한다(4)

삼국이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건 4세기 부터 6세기 사이이다, 1700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민족의 중추적인 종교 역할을 하였으므로, 불교를 제쳐놓고, 한국민족의 종교와 사상을 논하기는 어렵다.

-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불교사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윤회(輪廻)사상» 이 있다

윤회 사상은 바뀌가 끝없이 돌아가듯이, 모든 생물의 삶도, 영원히 끝도 없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즉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인데, 살아있을 때의 인간의 행위는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선이나 악에 대한 결과로, 다음에 태어날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미천한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미천한 동물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고대의 한국민족에게도 싹트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4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봄에 싹이 나고 가을에 시들어 없어지지만, 겨울이 지나고 또 다시 봄이 되면 새잎이 나는 자연의 순리 속에서, , «영혼 불멸설» 이 나오게 된 최초의 인식적 근거로서 자연을 관찰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불교의 «극락(極樂)사상»이 있다, 이 극락사상은 완전한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실제로 존재 하는 곳으로 명시되어, 막연하게 하늘 님을 섬기던 한국민족에게 좀더 구체적인 영원한 세계 «즐거움의 땅» 이라는 희망을 열어준다.

셋째: 동체자비 (同體大悲)란

사람들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 동정, 연민의 정으로서 상대의 문제와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 동체자비의 영성은 한국 고대 민족의 기본 영성인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일체가 되어 한국민족이 “이웃을 내 몸(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공동체 영성”이 만들어 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넷째: 업보(業報)사상 은 다른 말로 인과응보(因果應報) 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과거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으로 한국민족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이 언젠가 지은 죄 탓이 아닐까 라는 근거 없는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

- 유교를 통하여 만들어진 한국민족의 영성.

한문학의 도입으로, 유교도 불교와 같이 유학사상으로 한국민족에게 이미 들어와 있었으나, 국가에서의 인정은 고구려가 소수림왕때(371-384) 이고, 백제는 건국초기(B.C 18년)부터 들어왔고 신라는 6세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급하였다고 한다.

유학은 통치계급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선진국인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유학사상의 핵심인 천명관(하늘의 신)이 한국민족 고유의 종교사상, 즉 조상숭배나, 천신 사상과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하여, 한국민족의 토착사상과 별다른 마찰이 없었고, 셋째는 등급을 중시하는 유학사상을 봉건국가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윤리적 이념으로 삼아 왕권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5)

공자(B.C 551-479)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仁)이다, 이 사상은 효(孝)로서 부모를 높이고 잘 섬기는 것이고, 우애(友愛)는 형제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인간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존중과 사랑으로 어울리는 원리로 삼아 정치 발전에 활용되었다.

공자의 사후에 맹자(B.C 382-289 와 순자(B.C298-238)가 등장한다,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 인간의 삶에 필요한 윤리덕목으로 3강 5륜을 정리하여 유교의 사상을 좀더 구체화 하였고, 순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시켜 공자의 논리인 인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날 때부터 이익을 구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싸움이 그치지 않으므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의를 배우고 정신을 수련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6)

그래서 유교는 공자의 인 사상과 맹자가 세워놓은 3강 5륜, 윤리덕목을 순자의 이론, 성악설을 극복하기 위해 예의를 가르치는 교육이 연합되어, 한국민족의 인문 교육이 유교사상으로 기틀을 잡았다, 유교의 삼강 오륜(三綱五倫)은,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사람이 이루어야 할 5가지 실천 덕목이 되었다.

충과 효, 즉 왕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 했으며,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라는 인간 관계가 서로 종속성이 있다, 서로간에 절대적이고, 상과 하를 나누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윤리적 성격을 가진다,

오륜 역시 삼강과 마찬가지로, 상하 관계적 질서와 봉건적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지배층의 통치 이념으로, 민중을 교육하는데 오랜 동안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하관계는 절대적이며, 신분의 차이를 계속 유지하여 인간관계의 상하의 틀을 만든, 긍정적으로는 순종과 섬기는 성정이 고양되었지만, 부정적으로는 근본적 인간관계가 종적(위 아래가 있는)이고 신분의 차이를 구성하는 기틀이 되어 한국민족의 민족 영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 불교나 유학 외에 도교와 도가 사상이 있다.

도교를 통해서 형성된 한민족의 영성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여건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영성과, 풍류를 즐기고, 인생사에 다가오는 모든 희비애락(喜悲哀樂)을 수용하며 인내하는 겸손하면서도 여유 있는 영성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7)

2.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민족의 영적 성질,

1) 중국의 역사서인 “구당서” 의 고구려 편에서 고대 한민족의 민족 영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풍속이 책 읽기를 좋아하니, 이는 가난한 집 사람이나, 천한 집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각 거리마다 “경당” 이라고 부르는 큰 집을 지어놓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모여 책을 읽고, 활 쓰기를 익혔다고 한다” 구당서에 기록된 이 말은,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고대 한국민족은 세계의 기원과 관련하여 이미 꽤 높은 수준의 철학적 사유에 도달해 있었고, 그 당시 고대 한국 민족의 철학적 논쟁은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것이 “신(神)이니, 기(氣)이니” 하는 근본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하였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자연현상의 본질, 또는 그 변화를 토론하였다” 라고 하는 역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8)

2) 역사적으로 한국은 군자국으로 불려왔다. 군자란 유교의 바람직한 이상적 인간상의 용어다. 동방의 군자국인 한국민족을 중국인들은:인방, 의국(義國), 인의지향(義方向) 예의지국(禮義方國)등으로 불렀다, 그 예로서 한서 지리지(은나라 말 주 나라 초 고조선 시대의 풍속을 기록): 사람들이 서로 도적질하는 일이 없어 문호를 닫지 않고 지내며, 혼인함에 있어 매매하는 버릇이 없으며, 부인들은 음란하지 않으며, 예의가 바르고 음식에 있어 범절이 있었는데 중국상인들이 들어온 뒤에 그 풍속이 변질되었다고 하였다. 공자도 군자국인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고대 한국민족은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는 인도주의적 정신이 깊은 민족이었다(9)

3. 한국민족의 기독교 유입과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

1) 한국민족의 기독교 유입

가) 19세기 말 서양의 제국주의 물결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몰려왔고, 500년 동안 조선의 정치와 교육, 문화 등에 견고한 반석으로 서있던 유교 사상이 서양사상이라고 불리우던 기독교 사상에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신분의 차이가 뚜렷하고 남 여 차별이 선명한 수직적 인간관계에 명등고 지친 조선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10) 라는 사상은 군중들에게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양반과 상민이,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어린이가 동등하여 모두 함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활에 대한 개혁의 소망으로 천민과 평민, 그리고 유교를 타파해야 한다고 믿는 양반들까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폭넓게 받아들여졌고, 일본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빠졌기에 더욱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이 모임을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나) 기독교는 조선사회 전체를 개혁하였다. 의료선교를 통해서 미신에 찌들어 있던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고, 신분차가 무너지고, 구습이 타파되고, 교육이 바뀌면서(배제학당), (11)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청년운동 및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기틀이 세워졌다.

2) 한국민족에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

가) 선교를 시작할 때 쪽 복음과 한 두 권 이지만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왔다,

나) 기독교 교육:네비우스 방법을 선교 정책의 원칙으로 시행하였다,

(자립전도, 자립정치, 자립경제)

다) 한국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민족의 민족 영성이다.

고대 한국민족의 영성은 홍익인간사상,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사상)이 있었고, 불교의 자비 사상(공휴이 여기는)과 동체사상이(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유교의 삼강오륜의 희생하고 순종하고 책임지며 정조를 지키는 교육지침이, 예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영성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의 성도들은 초대부터 선교사들의 가르침대로 매일 새벽 이른 아침 (5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직장엘 나가고, 수요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드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엔 아침 예배와 저녁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Q.T시간(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직장인은 목요일 마나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갖는 신앙생활을 해 왔다.

한국의 직장이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하루 쉬는 휴일을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남아 봉사하고, 휴가철엔 농촌 봉사나, 해외 봉사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자민족만의 교류와 협동과 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민족 영성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신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기독교 교육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넓게 확산되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4. 한국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루어진 결과

한국의 기독교는 초대부터 일제기를 거쳐 6,25전쟁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활동한 모습은 칭찬받기에 충분하지만, 이 지면에서는 6,25 동란 후부터 의 모습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교회 성장과 한국경제 성장은 한국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맞물려있다고 본다,

한국의 국가복지는 1961년-1970년까지 40만 명에게 밀가루 한 포석을 나누어주었고, 1989년에 와서야 국민 의료보험과 1998년에 기업의 4대 보험이 시작됐다고 한다(12)

전쟁 이후 반 토막이 난 좁은 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일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에, 고아 돌보기, 학교세우기, 야학으로 문맹퇴치하기, 일선에 나서기에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돌보기, 노인 돌보기, 상이용사 돕기, 의료봉사로 환자 돌보기 등, 오늘날 국가복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원 동참하였기에,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 경제성장에 참여 할 수 있었다(13)

결론

그럼으로 종합한다면, 한국에 복지제도가 정착하기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서와 영성은 전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어왔다, 단 코로나로 몇 년간 교회생활 양식에 혼돈이 생겼고, 전쟁의 파동으로 물가가 치솟고, 생활고가 발목을 잡는 사회 시스템과 화려하게 발전해 가는 과학의 물결로,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거침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에 한눈을 좀 팔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한국의 기독교인들 안에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주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한결같이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너무나도 마땅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가?

일부는 한국교회가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는 종교개혁과 같이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옳다, 마땅히 일리가 있고, 그 의견들에 동의하는 바이다.

•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미래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듯한 불안한 외형이 되어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1.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듯한 외양을 보이게 된 이유.

• 1997년 한국에 IMF 가 터지고, 그 후 외국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국과의 접촉이 활발해지자, 단일민족으로 살아서 타 문화에 예민하지 못하다가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자,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다시 부활시키기 시작하였다, 한국민족의 전통문화가 대부분 민족신앙(샤머니즘, 토템미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영성이 아닌 다른 영성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 1980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2001년에는 이미 30만에 달한다고 한다(14),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성(영)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원하던 원하지 않은 한국 영성에 굳건하지 않은 심령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거기다 더하여서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며 “개인주의와 개인 인권 존중” 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탱해 왔던 공동체 사상이 개인중심 사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회 문화의 영향을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받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 일 수 있다.

2. 기독교인 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장, 성숙의 필요성.

- 아주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이타적인 삶,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기독교인의 심령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 양자가 되어가려고 힘을 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마5:13),» 이미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소금의 삶을 살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이미 빛이니까, 빛의 삶을 살면 된다.

-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겹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라 등,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은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가 치면 나도 쳐야 되고, 상대가 뺏으면 나도 뺏는 것이 마땅한 심성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 이지만,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무리가 되는 명령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말씀대로 살아갈 권능을 이미 주셨다, 주신 것을 믿고, 회복하고, 의지 하고 살면 된다.

-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기독교인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확신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6:19)»

- 반복하지만 기독교인은 이미 성령의 전이다, 신앙인 개인과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을 근거로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는 것을 실행하여 경험해 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 회복이다».

참고도서

1. 조선대학교 우리 철학 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자료. 조선대 우리철학 연구소 2014년 출범.
2. <https://ko.wikipedia.org/wiki>
3. 삼국사기: 고려인종의 명으로 김부식이 1145년에 편찬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유사: 고려말기 일연이 1281년(충렬왕7년)에 편찬한 야사에 해당되는 역사.

4. 한국 사상과 불교, 박성배 작, 양장본 출판, 2009년 7쪽 참조.
5. 조선대학교 우리 철학 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자료. 조선대 우리철학 연구소 2014년 출법.
6. 한국학, 한국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년, 529쪽. 288쪽 참조.
7. 조선대학교 우리 철학 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자료. 조선대 우리철학 연구소 2014년 출법
8. 구당서: 중국 당나라 고조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21명의 황제가 통치한 290년 동안 당나라의 역사기록
9. 구당서: 중국 당나라 고조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21명의 황제가 통치한 290년 동안 당나라의 역사기록
10. 김 폴린. 대한기독교서회 출판. 1992년 376쪽. 20쪽 참조.
11. 한국교회사 이야기 (상권), 서정민, 말씀과 나눔 출판 1991년 서울, 344쪽 14-참조.
1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https://blognaver.com>
13. 연동교회, 영락교회 역사.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Article